

포교원·교육원 10년 집중진단 <하> - 승가교육 체계잡기 어디까지 왔나

운영은 '사립' 통제는 '공립'...조화 필요

조계종 교육원이 1995년 1월 13일 상구부리 화회생명을 교육이념으로 개원한지 올해로 10년이 지났다. 81년 단일계단이 성립되고, 91년 통합 행사교육원이 개원한 이래 교육원은 지난 10년 동안의 기초부터 전문과정까지 단계별 승가교육 체계를 제도화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과 못지않게 종단의 기초교육과 기본(강원)교육 부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제방강원에는 1100여명의 사미(나)들이 수학하고 있다. 실질적인 승가교육의 중심축이다. 스님이 되기 위한 기본을 배우는 실질적인 '의무교육' 과정이다. 하지만 모두가 인식하는 강원교육의 중요성만큼 교육원의 행정적 지원과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원이 본말사 주지스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대다수 스님(90.6%)들이 앞으로 출가자들의 '양보다는 질'

제도화 치중 '내적충실' 못채웠다 비판 "행정지원 등 관리 엄격해야" 인식 여전

적인 면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현 승가교육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는 실제 '학부형' 역할을 하는 본말사 주지스님들조차 현 교육제도에 불만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강원교육이 오늘날 승가사회의 변화에 걸맞은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종단의 교육당국인 교육원과 일선 강원현장의 엇박자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강원교육의 부실문제와 관련, 교육원은 좀더 강력한 통제를 통해 강원 교육의 통일성과 체계를 잡아야 하지만 그동안 예산과 인력 등 현실적 한계가 많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교육원 관계자는 "현실에 맞는 교과과정 개발, 교수방법 개선, 충분한 교육시간 확보 등 학인들의 학습여건을 향상시키면서 기본 학사일정 통일, 학인 이동 질서, 의제 준수 등을 보다 엄격하

게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강원 입장에는 반대다. 교육원의 지나친 규제 때문에 오히려 강원 스스로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통도사 강주 우진 스님은 "강원의 설립과 운영, 강사인력, 학인선발까지 모두 사중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립대학'의 개념이 편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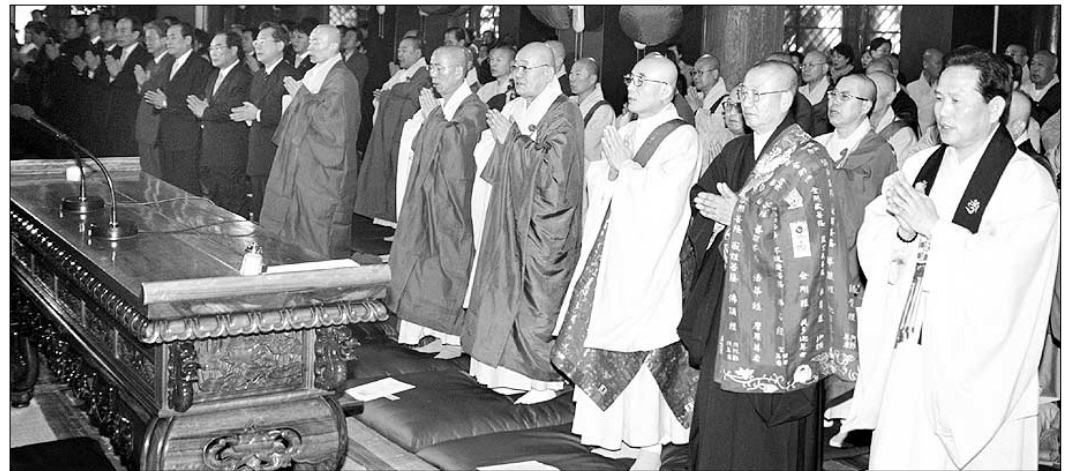
실제로 2003년 사미강원 한 곳을 운영하는 데 약 2억 5000만 원 가량이 든다. 현재 19곳이나 되는 강원인 교육원으로부터 받는 지원은 1인당 20만원 남짓인 강사 보조비가 고작이다. 때문에 교육원이 지원은 별로 없고 '간섭과 통제'만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다.

한때 교육원에서 소임을 맡았던 한 스님은 "교육원의 근본적인 문

제는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생산해내는 주체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강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 개발, 교수법 개발, 교과과정 연구 등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기존에 해오던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행정중심의 조직이라는 한계에 그대로 갇혀 버렸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동국대 교수 법산 스님은 "승가사회 내부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기존의 교육 체계를 고집해온 일부 강원교직자들의 자성과 함께, 강원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이끌지 못한 교육원이 이제부터라도 강원교육 현장의 고민과 필요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조계종이 추진중인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 활동이 단순한 제도의 변형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육원의 체질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1월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종단협 신년하례법회에서 참석자들이 남아시아 지진해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남아시아 복구 지원에 동체대비행을" 종단협 신년하례 조계사 대웅전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가 남아시아지역 지진해일피해복구 지원에 범종단적으로 나설것을 결의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효안 정사를 비롯 정동제 문화관광부장관 국회정각회 이용희 회장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종단협의회 회장 법장 스님은 "이

번 재앙은 인류 스스로 자연을 파괴해 불러온 재앙"이라며 "남아시아 지진해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부상자 구호와 복구지원에 동체대비의 행을 실천하자"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대북사업 실무회담 잇따라

조계종·천태종 내달 금강산·북경서

2005년 대북사업의 물꼬를 틀 남북교류 실무회담이 개최된다.

조계종과 천태종은 2월 1~3일 3일간 각각 조별련·북측 영등사북원위원회와 실무회담을 갖고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한다.

조계종은 조별련과 신계사 북원문제를 비롯해, 개성 유적 발굴조사, 조계종 중진 스님들의 방북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조계종은 조만간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원로·중진 스님들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실무회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계종은 또 금강산 관광객의 신계사 방문이 증가하는 것에 따른 대책과 만세루와 요사채의 구체적인 복원 일정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천태종은 최근 북원불사가 마무리된 영등사 낙성식과 대각국사 의천 스님을 추모하는 학술세미나, 개성 인근 평화통일나무 심기 등을 의제로 회담에 나선다.

유철주 기자

'성탄트리' 규정공개 요구

조계종 종평위, 서울시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 이하 종평위)가 서울시에서 서울시청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개할 것을 1월 14일 공식 요청했다.

부처님오신날 징입을 운영기간이 35일밖에 비해 성탄트리 설치기간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오는 2월 21일까지 71일이 되기 때문이다.

종평위 손안식 위원장은 "특정 종교의 시설물을 지나치게 긴 기간동안 설치해두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서울시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도심남골당 규제완화

보건복지부, 법개정키로

도심 내 장사(葬事)시설 설치 규제가 완화되고 납골당, 화장터 등의 시설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도시 개발 때 공설화장장과 납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돼 불교 장례문화의 확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월 19일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최원)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빠르면 이달 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신청

내달 28일까지 지자체서 접수

문화관광부는 2006년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해당 전통사찰은 사업계획서 등을 2월 28일까지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군·구는 3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심의·검토한 뒤 시·도에, 시·도는 3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에 제출한다.

문화관광부는 지원 원칙으로 △전통사찰로서의 원형 보존에 반드시 필요

한 불전시설, 법당시설 △당해연도에 보수완료가 가능한 사업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전통사찰, 재정 부담 능력이 미약한 영체사찰, 산간 오지 사찰 등을 제시했다.

한편 문화부는 2005년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소요예산으로 국고 61억6900만원(지방비 61억6900만원, 자부담 30억8400만원)을 확보했다.

남동우 기자

교육·수행체계 강화 등 종단 정체성 다지기 역점

조계종을 사업 확성

2005년 조계종 중앙총무기관 11개 핵심과제 및 21개 핵심사업이 1월 19일 확정됐다.

총책이조별로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행중흥 전략'으로 거듭나는 종단'에서는 승려교육 전반의 강화, 간화선을 중심으로 한 스님과 신도들의 수행체계 정립 및 수

행지도자 양성, 승려노후복지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복지시설 건립, 승려노후복지기금 확대가 주요 추진 사업으로 배치됐다.

둘째, '참여 속에 함께 하는 종단'에서는 교육, 수행, 포교 중심의 행정체제수립과 중무행정 지방이양 준비 사업이 포함돼 있다.

셋째, '종도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종단'에서는 신계사 복원 사업,

소외계층 지원 및 불교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템플스테이 저변 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넷째, '미래를 준비하는 효율적인 종단'에서는 온라인 국제포교활성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완공,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등이 있다.

남동우 기자

우리당 임채정 당의장

법정스님 예정

열린우리당 임채정 당의장이 1월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정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법정 스님이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고 이해해 국정의 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자 임 의장은 "현장에서 민의를 충분히 파악한 뒤 정책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법정 스님이 또 "개혁은 생 각이 바뀌지 않으면 형식적이지 제도적인 강제가 불과하다"고 충고하자 임 의장은 "의식개혁을 이룰수 있도록 종교계에서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남동우 기자

"신체갈마 완화한다"

조계종 행사교육원

행사교육원 운영위원회는 1월 18일 제2기 제4차 회의를 열고 제2기 행사교육원을 3월 16일~4월 7일까지 23일간 김천 직지사(예정)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유나에 지원, 교육원 책임자에 교육부장 현관, 습의도감에 해능(남행자)·용운(여행자) 스님 등을 위촉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에서 입교행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령을 준수한다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2005학년도 동방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982년에 교계 최초로 설립하여 21세기 불교를 이끌어 갈 주역을 양성하고 있는
20년 전통의 불교 대학에서 정진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불교학과	2년	정규00명 통신00명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의 학력자	강원사집과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승가과	2년	정규00명	· 입학원서(소정양식)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종단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법패과	2년	정규00명	· 주민등록등본 · 반명함판사진 6매	
불교미술과	2년	정규00명		

2. 특전

- 졸업생 전원 2급 정보교사 자격증 발급
- 승려인 경우 종단의 대선법계품수
- 본교 졸업생으로 재입학하여 졸업하면 중등법계품수(※종단 승려인 경우)
- 법패과 전원 영산재보존회 이수증 수여
-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취득(국가고시)
- 성적우수자 및 각종 장학금 지급

5. 전형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법패과·불교미술과)

3.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년 1월 3일(월) ~ 2005년 2월 15일(화)

4. 전형일

- 2005년 2월 18일(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6.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학처 : 서울 성북구 성북2동 330-586 (TEL. 02-745-2030~2, FAX. 02-744-3461)
- 홈페이지 : www.dongbang.org
- E-mail : dongbangdae@hanmail.net
- 태고종총무원 : 서울 은평구 신사동 9-16 (TEL. 02-382-7361~2)
- 각 시·도교구총무원

■ **종법 제20호 교육법**
 제3절 불교대학 제31조(수학의무)에 의거, 불교대학은 승려 및 정사(재가승)의 기본교육과정으로서 본종 승려 및 정사는 누구나 이수해야 한다.

한국불교
태고종립

東邦佛敎大學

서울 성북구 성북2동 330-586 ☎(02)745-2030~2